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298 편

제1독서 : 사도 14, 20b-27

제2독서 : 묵시 21, 1-5a

복 음 : 요한 13, 31-33a, 34-35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예수님의 유산(遺産)

□ 강론

강 덕 행 신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b)”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가 나간 뒤에, 십자가 상 죽음을 예견하신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명령입니다.

이 고별 명령 안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①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랑에도 자기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중이라도 사랑에서 소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고적함과 공허감을 잊으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보통 자기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소유를 주시려 하셨고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시려 했습니다.

②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할 일에는 한(限)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너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행복도 가져오지만 고통도 가져오며 십자가도 요구합니다.

③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으면서 그들의 모든 약점을 아셨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사시면서 잘못투성이의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생활 개선을 바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④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에게 친구가 가장 요구될 때 그들은 주(主)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우리들도 생활 안에서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재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구한 사랑은 용서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항상 베푸셨던 사랑 즉 자신을 잊은 사랑, 희생적 사랑,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신 사랑이 제자들 서로간에, 우리 자신들 서로간에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을 하실 때, 재산이나 명예 등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제자들 서로간에, 우리들 서로간에 이루어져야 할 참 삶의 길을 유산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순창 주임신부)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사도행전 2, 45

「조세형이 훔친 물품 중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검찰이 보관중인 물품은 귀금속 등 87종 2백41점으로, 액수로는 1천2백만원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장물들은 조로부터 압수했는데, 조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했으나 아직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이 장물들을 확인시켰으나 이 장물이 비교적 고가품이 아니고 또 실제로 자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품목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어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 벼라별 생각이 다 든다.

이번 사건을 따지는 국회에서는 ‘도둑을 미화(美化)시키는 세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가? 이것은 국민간에 위화감(違和感)이 일고 있다는 한 단면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피해자들이 도둑 맞은 제 물건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가닥 부끄러울 때뿐이 아니라 더 이상 망신당하기가 싫어서 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이르니 피해자들을 다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있다. 식구들의 생계와 자식의 학비를 위해서 나물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쫓기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순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지위가 높고 이름이 나고 돈이 많아도, 감히 이들 앞에 자신있게 고개를 쳐들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 기회에 그(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가진 것을 내어놓았으면 하는 말도 안되는 꿈을 꾸고 싶음은 왜일까?

순정이 산책

2백주년에는 2백만명이 되게 하자

□ 어린이날을 맞으며

새롭고 경이로운 삶의 시작

강 금 혜 (로사)

아버지·어머니란 위대한 이름

당신은 참으로 할 일도 많고 책임도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고상하고 분에 넘치는 아버지란 이름과 어머니란 이름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완성은 곧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행복스러운 아버지도 어머니도 되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되어야 할 아버지며 어머니인데.

× × ×

당신의 아름다운 천사들, 하나님이 맡긴 이 조그만 천사들을 비참하고 험악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식을 낳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의 육체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방하고 고치려 하는 당신이 어째서 마음의 전염병은 본체도 앓고 있는 것입니까?

× × ×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정스러운 생활, 정다운 대화, 명랑하고 화목한 가정, 이보다 더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침에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바르고 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극도로 혼란한 현대 사회생활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오늘이기에 아버지 어머니의 인내와 노력과 애정과 지혜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 ×

당신은 가끔 자녀들이 자랄수록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고, 버릇이 없는 때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미워질 때도 있고, 자신이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생이라고 체념할 것입니까? 이러한 절망과 한탄에 앞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반성해 보는 일이 있습니까? 권세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죄가 많다고, 무식하다고 한탄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이 작은 천사들은 아버지의 높은 의자, 대궐같은 집과 자가용, 사장이나 박사님 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정스러운 대화」를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저도 어릴적부터 무척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라던 어떻게...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게 살거다" 하며 이것저것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도 되고, 때로는 어나운서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유명한 화가도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저것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항상 너무나 바빠서 내 일이 아닌 것에는 조금도 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즐거운 것 같았고, 제가 투자한 모든 시간과 노력은 훗날에 내게 큰 보람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분을 위하여 생(生)을 바친다는 것은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인간에게 때때로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 뿐, 어느 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하곤 했지만 감사할 줄 몰랐고, 성당에 나가긴 했어도 교회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교만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행복한 것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방황했고, 마음은 언제나 영원을 갈구했지만 늘 텅빈 공허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보였고, 그 얼굴들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 끝없는 기쁨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들 안으로 뛰어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참된 삶의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하느님"- 그들이 간직했던 이 짧은 한마디는,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찾아 헤맸던 모든 것에 만족스런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활을 단순하게 해 주었고 끝없는 감사와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내 삶의 목표와 나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결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이나 오랜동안 버렸던 그분이지만 끝끝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시로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부르심에 '네'라고 답했고, 내 모든 삶을 통째로 그분께 드리고 싶은 소망으로 불랐습니다. 제겐 새롭고 경이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理想' 안에서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휘폴라리나)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별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SS] FASHION 전주 특 약 점
머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EN
첼 린 저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 4 4 5 1
주인 율리안나



□수도성소 관심자를 위한 주말목상회 안내

지난 성소주일(4월 24일)에는 사제 성소 관심자 120명이 광주 대진 신학대학을 방문하고 그곳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도 성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말 목상회를 마련하였으니 젊은 여성들의 많은 참여있기 바랍니다.

제 목 : "부르심과 응답" 지 도 : 유 장훈 신부

대 상 :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젊은 여성(직장인 환영함)

기 간 : 7일 오후 3시~8일 오후 4시까지(1박 2일)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접 수 : 교구청 사무국 준비물 : 성서·기도서·성가책·묵주·필기도구·세면도구 등

회 비 : 3,500원 ※ 피정기간 동안 전국 수도단체를 소개하는 자료 전시회가 있습니다

□ 해외 성지순례단 재모집

성지순례는 가톨릭의 고유한 신심행위 중의 하나이며, 성년 기간 동안에 가지는 이 순례는 세계 모든 신자들의 바램이기도 하다. 교구에서는 지난 3월말 성지순례단을 모집한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을 조정 다시 순례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다.

1. 출발 예정일 : 6월 3. 기간 : 20박 21일

3. 모집인원 : 성직자-4명, 평신도-20명 4. 요금 : 2,344,680원

5. 신청서 제출 : 교구청 사무국 6. 신청 마감일 : 5월 14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구청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된다.(지난번에 신청서를 내신 분은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됨)

□ 제4차 민족 복음화 대회

천주교 대전교구와 레지오 마리에 한국 세나투스 주최로 민족 복음화 대회가 「이루어지소서」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열린다. 교황 대사과 각 교구장님이 참석하게 될 전국 모임에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때 : 5월 5일 오후 1시 곳 : 대전 공설운동장

□ 전 대북 신부님 주소

아르헨티나에 교포 사목을 떠나신 전 대북 신부님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Rev. Lawrence Chun

La Colectividad Coreana Catolica

Thorne 1261-1406 Buenos Aires, ARGENTINA

□ 양서 소개

높은데서 사슴처럼

인간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감감하며 높은메로의 삶을 지향한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삶에 동반되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 갈등 등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참아낼 때 우리는 날랜 사슴처럼 높은데에 오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우화. H. 버나드 지음 이 미림 옮김. 2,500원

믿음·소망·사랑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 중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초석을 이루는 이 세가지 덕을 일상적인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는 묵상서. G. 알베리오네 지음 표 등자 옮김. 900원

요심이(508) 김병오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쇼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 7 7 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천고중앙 사거리 전북은행 노동동지점 앞

남자 수도자 성소 상담

-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 마리아회 수도원은 교육사업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12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03-2 마리아회 (마리아니스트) 수도원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싱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 고 눈을 편 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렌타

전화 ③ 3 0 3 2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목적 조절렌즈, 가벼운 렌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 역전 오거리 윤 종 순(베드로)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제 평의회 및 참사회의: 4일 오전 10시30분(참사회), 오후 2시(평의회)
2.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위원회: 4일 오후 7시30분, 교구청 회의실
3. 제2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7~9일(대야), 9~11일(팔마), 11~13일(오룡동), 13~15일(눈울동), 15~17일(월명동)
4.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 주레-김성진 신부
5. 7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6일 오후 5시, 장소-함열 본당
6. 공동체 독상회: 3~6일, 가톨릭 센터, 접수-오후 3시 30분
7. 휘클라레 월 전체모임: 7일 오후 5시(가톨릭 센터), 8일 오후 2시(중앙 성당)
8. 월요 성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과목-창세기
- ☆ 축! 영명: 3일 성필립보와 성야고보-성민호·김동준·박병준 신부님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호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1711~3

1. 견진교리: 견진일 22일, 10시30분 미사, 접수 15일 까지, 교리-17~21일까지(오전반-10시30분·오후 반-7시30분)
 2. 예수승천 대축일(15일): 오전 10시30분 미사, 금암동 새성당에서
 3. 고등학교 소풍: 5일, 장소-혹석골, 출발-8시
 4. 주일학교 소풍: 1일, 장소-견지산
 5. 주일학교 자모회 월례회: 6일 어머니 미사후
 6. 축! 환영: 이번주 전입자-정경수(토마스) 가족, 성미화(세레피나) 가족
 7. 신축헌금(추가)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생수-200만원(추가 100만원), 차규복-300만원(추가 200만원), 오종원-300만원(추가 100만원), 김인협-1천만원(추가 700만원), 김병익-100만원(추가 50만원), 김완준-150만원(추가 100만원), 성달용-150만원(추가 100만원), 소홍영-300만원(추가 200만원), 이상범-150만원(50만원), 김영애-200만원(추가 100만원), 한정순-50만원(추가 30만원) 박승창-300만원(추가 200만원), 문정현-100만원(추가 50만원), 전은주-100만원, 누계-164,687,600원
- 지난주 봉헌금: 779,601원 교무금: 386,0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종태
보좌 신부 나송성
사도 회장 이홍재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1. 성지순례: 5대의 관광버스로 20일 오전 6시 출발
①장소-미리내 성지, 자연농원, 유성온천
②준비물-도시락, 화비-7천원(승차권), 10일한 본당 사무실에서 승차권 예매중
 2. 성모성월: 성모상 앞에서 매일 저녁미사전 기도있음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전 청소담당: 2일 오전 10시 순결의 모후턴
 5. 아파트 소식
지성인 교리시간 변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인후동 성당내, 인후아파트 식당 이전: 문구사 2층 탁구장으로 이전, 다음주일 미사(8일) 새성당에서
성모회 소식: 임원회-11일 오전 10시 본당 사제관 월례회-12일 오전 10시, 인후동성당
- 지난주 봉헌금: 562,360원 아파트: 46,655원
지난주 교무금: 255,500원 아파트: 11,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병희
보좌 신부 정양현
사도 회장 양철열

신부(3) 2182
수녀(72) 1222
사무(72) 6259

1. 부녀회(성심·가리마스) 합동회의: 공식미사 후 반석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정원 조성작업
 2. 사도회 삼일위: 7일 밤 8시30분
 3. 견진교리(성사) 특별강좌: 13일 저녁 7시30분
 4. 성령세미나 개최: 9일~12일 저녁 7시30분
※ 참가비-2천원, 금주까지 신청 마감
 5. 의명 교우 본당에 승용차 기증: 감사합니다
 6. 구 대학생회관을 본당 수녀원 및 교육관으로 전용!
 7. 본당 전화중설: 수녀원(72)1222, 사무장래(72)6259
 8. 주일학교 소풍: 8일 9시30분 출발, 장소-독매
- 지난주 봉헌금: 332,920원 교무금: 597,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전화 ①5238

1. 첫 철레 6·7: 6일·7일 저녁 7:30분
2. 아치에스 행사: 1일 오후 3시, 주일학교 3시미사 2시
3. 부녀회·빈첸시오회: 2일 어머니미사 후

4. 치명자의 모후 뿌리아회: 8일(다음주일) 오후 2시
 5. 사도회·부녀회·빈첸시오회 연석회: 8일 cu회의 후
 6. 성우회: 다음주일(8일) 공식미사 후
 7. 미사시간 변경: 수·주일 새벽 6시미사 5:30분으로
 - ∞ 민족 복음화 대회: 5일 오후 1시, 대전 공설운동장
 9.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건 ②신재마 봉헌-독서하신 분
차주전례: 해설-김재석, 독서-①이상기 ②김순경 봉헌-독서하신 분
- 지난주 봉헌금: 538,105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전화 ②2276

1. 사제양성 후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회비 5만원)
회원-박장준·김배근·장기호·이복남·김낙완·김광수·손순자·한윤순(13명)
 2. 유아세례: 매월 첫주일 공식미사 전
 3. 사도회 월례회: 4일 저녁 8시
 4. 반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뿌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회의실
 6. 자모회: 3일 10시30분
 7. 차주전례: 독서-①박장준 ②박경환 신자들의 기도-고복근·서춘옥·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262,790원 교무금: 260,500원

(휴정이)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수겸

전화 ③7366

1. 사도회 월례회·아치에스 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2. 뿌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누갈다(부녀)회: 금주 토요일 10시(매월 첫 토요일)
 4. 첫 영성체 교리: 매주 화~금
 5. 평신도 강론: 이귀례
 6.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①김종환 ②송용호 기도-이장노·박병열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①박해근 ②이귀례 기도-김영채·김정분
- 지난주 봉헌금: 346,530원 교무금: 259,350원

(전동)

주임 신부 김병열
사도 회장 이종두

신부 ①6208
사무 ②3222
수녀 ③8347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마리아 뿌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신학생 회헌회에 가입하세요: 1주좌 1천원
 6. 주일학교 소풍: 오늘, 부모님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60,270원 교무금: 334,500원

(파티마)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신부 ①0915
수녀 ②4804

1. 뿌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기사회 피정: 7일 오전 9시30분 도시락 지참, 회원 아닌분도 참석 바람
 4. 야외미사(예수승천주일): 15일, 레지오 마리에 육의 행사도 결합
 5. 대전 신앙대회: 5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람
 6. 5월은 성모성월이며 5월 13일은 본당 주보축일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열심히 바쳐 주세요
 6. 성모회 월례회: 6일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7,980원 교무금: 295,200원